

2019. 06. 15.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는?

- ① 그는 밥도 안 먹고 일만 한다.
- ② 몸은 아파도 마음만은 날아갈 것 같다.
- ③ 그는 그녀에게 물만 주었다.
- ④ 고향의 사투리까지 싫어할 이유는 없었다.

01 ② 문법과 국어생활-현대문법: 문장성분

②의 '마음만은'의 문장성분은 주어이다.

[오답 풀이]

①의 '밥도', ③의 '물만', ④의 '사투리까지'의 문장성분은 모두 목적어이다.

2.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만 나열한 것은?

- ① 새까말다-싯퍼럴다-셋노랄다
- ② 시빨겅다-시허열다-싯누럴다
- ③ 새퍼럴다-새빨갈다-셋노랄다
- ④ 시하알다-시꺼말다-싯누럴다

02 ② 문법과 국어생활-국어생활: 한글맞춤법

②는 '매우 질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시-, 싯-, 새-, 셋-'의 표기가 모두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싯퍼럴다→시퍼럴다
- ③ 새퍼럴다→시퍼럴다/새파랄다
- ④ 시하알다→시허열다/새하알다

접두사	어두음	첫음절의 모음	예
셋-	울림소리(유성음)	양성모음 (ㅌ, ㄴ)	셋노랄다, 셋말갈다
싯-	울림소리(유성음)	음성모음 (ㄷ, ㄹ)	싯누럴다, 싯말겅다
새-	된소리, 거센소리, 'ㅎ'	양성모음 (ㅌ, ㄴ)	새까말다, 새빨갈다, 새 뽀알다, 새카말다, 새하 알다.
시-	된소리, 거센소리, 'ㅎ'	음성모음 (ㄷ, ㄹ)	시꺼말다, 시빨겅다, 시 뽀알다, 시커말다, 시퍼 럴다, 시허열다

3. 다음 <보기>는 시의 일부분이다. 시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한 자어는?

<보기>

세상에는, 자신이 믿는 단단한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과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말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테니스에 미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유에프오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중략>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
은 사람이 있다.

- ① 편견(偏見) ② 불화(不和)
- ③ 오해(誤解) ④ 독선(獨善)

03 ① 문학-현대문학: 현대 시의 제목

<보기>의 시는 이희종의 '편견'이라는 시다. 여러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나
누고 마지막 구절에서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여 그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도 편
견임을 비판하는 작품이다.

- ① 편견(偏見: 偏 치우칠 편/見 볼 견)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 ② 불화(不和: 不 아닐 불/和 화할 화) 서로 화합하지 못함. 또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함.
- ③ 오해(誤解: 誤 그르칠 오/解 풀 해)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알.
- ④ 독선(獨善: 獨 홀로 독/善 착할 선)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고 행동
하는 일.

4. 서로 의미가 유사한 속담과 한자성어를 짝지은 것이다. 관련이
없는 것끼리 묶은 것은?

- ① 원님 덕에 나팔 분다. - 狐假虎威
-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晚時之歎
- ③ 언 발에 오줌 누기 - 雪上加霜
- ④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 目不識丁

04 ③ 한문-한자성어와 속담

③ '언 발에 오줌 누기'는 언 발을 녹이려고 오줌을 누어 봤자 효력이 별
로 없다는 뜻으로,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으로서, 적절
한 한자성어는 '동족방뇨(凍足放尿)'이다.

'설상가상(雪上加霜)'은 눈 위에 또 서리가 내린다는 뜻으로, 어려운 일이
겹침을 이룸 또는 '환난이 거듭됨'을 비유하여 이르는 한자성어로, 이에 적
절한 속담은 '엷친 데 덮친 격', '안질에 고춧가루', '눈 앓는 놈 고춧가루
넣기' 등이다.

2019. 06. 15.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①

• 원님(사또) 덕에 나팔 분다: 원님과 동행한 덕분에 나팔 불고 요란히 맞아 주는 호화로운 대접을 받는다는 뜻으로, 남의 덕으로 당치도 아니한 행세를 하게 되거나 그런 대접을 받고 우쭐대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호가호위(狐假虎威 : 狐 여우 호/假 거짓 가/虎 범 호/威 위엄 위)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뜻으로, 남의 세력을 빌어 위세를 부림. [유] 가호위호(假虎威狐), 차호위호(借虎威狐) [속] 원님 덕에 나팔 분다.

②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떠난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

• 만시지탄(晩時之歎 : 晩 늦을 만/時 때 시/之 갈 지/歎 탄식할 탄) ‘때 늦은 한탄’이라는 뜻으로,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해서 탄식함을 이르는 말.

[유] 망양보뢰(亡羊補牢),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사후청심환(死後淸心丸), 실마치구(失馬治廐), 십일지국(十日之菊), 후시지탄(後時之嘆)

③

• 언 발에 오줌 누기: 언 발을 녹이려고 오줌을 누어 봤자 효력이 별로 없다는 뜻으로,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동족방뇨(凍足放尿)

• 설상가상(雪上加霜 : 雪 눈 설/上 위 상/加 더할 가/霜 서리 상) 눈 위에 또 서리가 내린다는 뜻으로, 어려운 일이 겹침을 이룸 또는 ‘환난이 거듭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유] 설상가설(雪上加雪), 전호후랑(前虎後狼)

[속] 얹친 데 덮친 격

[상] 금상첨화(錦上添花)

④

•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기역 자 모양으로 생긴 낫을 보면서도 기역자를 모른다는 뜻으로, 아주 무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목불식정(目不識丁 : 目 눈 목/不 아닐 불/識 알 식/丁 고무래 정) 고무래를 보고도 그것이 고무래 정(丁)자인 줄 모른다는 뜻으로, 글자를 전혀 모름, 또는 그러한 사람을 비유해 이르는 말.

5. <보기>의 밑줄 친 ㉠에 해당하는 글자가 아닌 것은?

<보기>

한글 중 초성자는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로 구분된다. 기본자는 조음기관의 모양을 상형한 글자이다. ㉠가획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한 것으로, 획을 더할 때마다 그 글자가 나타내는 소리의 세기는 세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체자는 획을 더한 것은 가획자와 같지만 가획을 해도 소리의 세기가 세어지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 ① ㄹ ② ㄷ ③ ㅂ ④ ㅈ

05 ① 문법과 국어생활-고전문법: 훈민정음의 제자원리

①의 ‘ㄹ’은 반설음으로서, 가획자가 아닌 이체자에 해당한다. 훈민정음의 가획자는 ‘ㅋ/ㄷ, ㅌ/ㅂ, ㅍ/ㅈ, ㅊ/ㅈ, ㅎ’의 9자이다.

[참고] 초성(初聲): 발음 기관 상형(象形) 및 가획(17자)

발음위치	발음기관 상형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아음(牙音)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ㄱ	ㅋ	ㅇ
설음(舌音)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	ㄴ	ㄷ ㅌ	ㄹ(반설음)
순음(脣音)	입의 모양(象口形)	ㅁ	ㅂ ㅍ	
치음(齒音)	이의 모양(象齒形)	ㅅ	ㅈ ㅊ	ㅊ(반치음)
후음(喉音)	목구멍 모양(象喉形)	ㅇ	ㅎ	ㅎ

6. 외래어 표기 용례로 올바른 것은?

- ① dot - 닷 ② parka - 파카
③ flat - 플랫 ④ chorus - 코루스

06 ② 문법과 국어생활-현대문법: 외래어 표기법

②의 ‘파카(parka)’는 올바른 표기이다. 에스키모가 입는, 후드가 달린 모피 옷을 뜻한다.

- ① 닷→도트(dot)
③ 플랫→플랫(flat)
④ 코루소→코러스chorus)

① 도트(dot): (특히 인쇄된 동그란) 점

다만, 같은 철자라도 상황에 따라 ‘cut: 컷/커트’나 ‘trot: 트롯/트로트’, ‘네트(net)워크/인터넷(net)’이나 ‘도트(dot)프린터/닷(dot)컴(.com)’처럼 표기가 달라지기도 한다.

[참고] 닷(dart): 놀이의 하나. 시계의 눈금처럼 점수가 매겨져 있는 원반 모양의 과녁에 화살을 던져 맞힌 점수로 승패를 가린다.

② 파카(parka): ㉠에스키모가 입는, 후드가 달린 모피 옷. ㉡후드가 달린 짧은 외투. 발음 기호로는 ‘파커’로 표기하는 것이 옳으나 이미 굳어진 관용을 존중하여 ‘파카’로 표기한다. 참고로, ‘파커’, ‘스태미너’, ‘에머럴드’, ‘테크놀러지’ 등도 굳어진 관용에 따라 ‘파카’, ‘스태미너’, ‘에메랄드’, ‘테크놀로지’로 적는다.

③ 플랫(flat): ㉠주로 속도 경기에서, 선수가 기록한 시간이 초(秒) 아래에 우수리가 붙지 아니하는 일. ㉡내림표(음의 높이를 반음 내릴 것을 지시하는 기호).

[참고] 플랜트(plant): 산업 기계, 공작 기계, 전기 통신 기계 따위의 종합체로서의 생산 시설이나 공장.

④ 코러스(chorus): ㉠합창(合唱), ㉡포크 송이나 대중가요에서 반복되는 부분.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9년 6월 15일 서울시 9급-A책형

2019. 06. 15.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7. <보기>의 ㉠~㉣을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다락골 ㉡ 국망봉 ㉢ 낭림산 ㉣ 한라산

- ① ㉠ - Dalakgol
- ② ㉡ - Gukmangbong
- ③ ㉢ - Nangrimsan
- ④ ㉣ - Hallasan

07 문법과 국어생활-현대문법: 로마자 표기법

④ ㉣의 '한라산'은 [할:라산]으로 발음하고, 'ㄹ'은 'll'로 적는다. 그리고 '산'과 같은 자연 지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따라서 'Hallasan'의 표기는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 Dalakgol → Darakgol

다락골[다락골]로 발음한다. 'ㄹ'은 초성에서는 'r'로, 중성에서는 'l'로 적는다. 그리고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Darakgol'로 표기해야 한다.

② ㉡ Gukmangbong → Gungmangbong

국망봉[궁망봉]으로 발음하고,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대로 표기한다. 따라서 'Gungmangbong'으로 표기해야 한다.

③ ㉢ Nangrimsan → Nangrimsan

'낭림산[낭 : 님산]'으로 발음하고,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대로 표기한다. 따라서 'Nangrimsan'으로 표기해야 한다.

8. <보기>는 황진이가 지은 시조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끼리 짝지은 것은?

<보기>

冬至人들 기나긴 밤을 한 (㉠)를 버혀 내여,
(㉡)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털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뽀구뽀 퍼리라.

- ㉠ ㉡
- ① 허리 春風
 - ② 허리 秋風
 - ③ 머리 春風
 - ④ 머리 秋風

08 ① 문학-고전문학: 고시조: 적절한 어휘

임이 오시지 않는 동짓달의 기나긴 밤의 시간, '허리(㉠)'를 잘라서 임이 오시는 짧은 봄밤을 연장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에는 '봄바람'이 적절하다.

※출전: 황진이의 연정가(戀情歌)

1. 해제: 임이 오시지 않는 동짓달의 기나긴 밤을 외로이 홀로 지내는 여인의 마음이, 임이 오시는 짧은 봄밤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동짓달의 기나긴 밤을 보관해 두자는 기발한 착상을 하기에 이른다. 또한 중장과



종장에서는 '서리서리', '구뽀구뽀'와 같은 의태어를 사용하여 여성 특유의 섬세한 감각을 매우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혼자 임을 기다리며 지내야 하는 긴 '겨울밤'과 낮이 길어 임과 함께 하는 밤이 짧은 '봄'이 서로 대조가 되어, 임과 오래 있고 싶은 화자의 심정이 잘 묘사되어 나타난다. 문학성을 띤 그의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예술적 향취를 풍기는 작품으로, 기교적이면서도 애뜻한 정념이 잘 나타나 있다.

2. 성격: 평시조, 연정가(戀情歌)

3. 표현

- 의태어의 적절한 사용, 관념(시간)의 시각화
- 기발한 착상(긴 기다림의 시간을 잘라서 짧은 만남의 시간을 연장시켰다고 함.)

4. 주제: 정든 임을 그리워하는 애뜻한 정

9.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이 꺼져 간다.
- ② 그 사람은 잘 아는척한다.
- ③ 강물에 떠내려 가 버렸다.
- ④ 그가 올 듯도 하다.

09 문법과 국어생활-국어생활: 띄어쓰기

③의 '떠내려가다'는 합성 동사이므로 한 단어이다. 뒤에 보조 동사 '버리다'는 보조용언이므로 '떠내려가 버렸다'와 같이 띄어쓰기한다.

[오답 풀이]

① 본용언 '꺼져'와 보조용언 '간다'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쓸 수 있다.

② 의존 명사 '척'에 '-하다'가 결합하여 된 보조 용언 '척하다'는 본용언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앞 말에 붙여 쓸 수 있다.

④ 앞말에 조사가 결합한 '듯도'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10. 맞춤법 사용이 옳바르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웃어른, 사흘날, 베갯잇
- ② 날리리, 남존녀비, 해택
- ③ 적잖은, 생각건대, 하마터면
- ④ 흠뻑, 맛있다, 선율

10 ② 문법과 국어생활-국어생활-한글맞춤법

②

• 날리리 → 날리리[날리리]: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소리나는3) 경우가 있더라도 'ㄴ'로 적는다.

• 남존녀비 → 남존여비(男尊女卑):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19년 6월 15일 서울시 9급-A책형

2019. 06. 15.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 해택→ 해택[해택(원칙)/해택(허용)]

‘계, 메, 폐, 헤’의 ‘ㄷ’은 ‘ㄷ’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ㄷ’로 적는다.

맞춤법(표기)	발음법
계수(桂樹)	[계수(원칙)/계수(허용)]
시계	[시계(원칙)/시계(허용)]
혜택(惠澤)	[해택(원칙)/해택(허용)]
계집	[계집(원칙)/계집(허용)]
핑계	[핑계(원칙)/허용]
게시다	[게시다(원칙)/게시다(허용)]

[오답 풀이]

①

- 웃어른: 위아래의 대립이 없을 때는 ‘웃-’을 쓴다. 따라서 ‘웃어른’을 표준어로 삼는다.
- 사흘날: 끝소리가 ‘ㄹ’인 말과 짝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ㄱ 끝소리가 ‘ㄹ’인 말과 짝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 바느질+고리→반질고리	• 사흘+날→사흘날
• 삼질+날→삼질날	
• 설+달→설달	• 술+가락→술가락
• 이틀+날→아튼날	
• 잘+주름→잘주름	• 풀+소→풀소
• 설+부르다→설부르다	
• 잘+다듬다→잘다듬다	• 잘+다랗다→잘다랗다

- 베갯잇: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베갯잇’은 [베갯닐]로 소리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③

- 적잖은: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그렇지 않은	그렇잖은	만만하지 않다	만만찮다
적지 않은	적잖은	변변하지 않다	변변찮다

- 생각건대: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안울림소리(ㄱ, ㅂ, ㅅ) 받침 뒤에서 나타나는 경우 ‘-하(어간의 끝음)’가 탈락한다. 따라서 ‘생각건대’는 바르지 않다.

- 하마터면: ‘하마터면’은 소리대로 적는 부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하마터면’으로 쓰면 잘못된 표현이다.

④

- 홀몸: 아이를 배지 아니한 몸을 이르는 말은 ‘홀몸’, ‘홀몸’은 ‘배우자나 형제가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ㄱ 홀몸: ㉠딸린 사람이 없는 혼자 몸. ㉡아이를 배지 아니한 몸.

ㄴ 홀몸: 배우자나 형제가 없는 사람.

- 밋밋하다: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민밋하다’는 바르지 않다.

‘밋밋하다’는 ㉠생김새가 미끈하게 곧고 길다. ㉡경사나 굴곡이 심하지 않고 평평하고 비스듬하다. ㉢생긴 모양 따위가 두드러진 특징이 없이 평범하다는 뜻의 형용사이다.

- 선율: 모음이나 ‘ㄴ’ 뒤에서 ‘ㄹ’로 적고 ‘ㄴ’을 제외한 자음 받침 뒤에서는 ‘ㄹ’로 적는다.

ㄱ 모음, ‘ㄴ’+ㄹ: 인과율, 선율, 환율, 할인율, 백분율, 출산율, 흡연율

ㄴ 자음 받침+ㄹ: 법률, 합격률, 승률, 확률



11. <보기>의 설명에 따라 올바르게 표기된 경우가 아닌 것은?

<보기>

-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① 섭섭지

② 흔타

③ 익숙지

④ 정결타

11 ③ 문법과 국어생활-국어생활: 한글맞춤법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안울림소리(ㄱ, ㅂ, ㅅ) 받침 뒤에서 나타나는 경우 ‘-하(어간의 끝음)’가 탈락한다. 따라서 ‘익숙하지’의 준말은 ‘익숙지’가 된다.

[오답 풀이]

①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안울림소리(ㄱ, ㅂ, ㅅ) 받침 뒤에서 나타나는 경우 ‘-하(어간의 끝음)’가 탈락한다. 따라서 ‘섭섭하지’의 준말은 ‘섭섭지’로 적는다.

어간의 끝음절 ‘하’의 앞에 울림소리가 오는 경우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따라서 ② ‘흔하다’의 준말은 ‘흔타’, ④ ‘정결하다’의 준말은 ‘정결타’로 적는다.

[참고] 어간의 끝음절 ‘하’의 준말

1) 어간의 끝음절 ‘하’의 앞에 울림소리가 오는 경우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본말	준말	본말	준말
간편하게	간편케	다정하다	다정타
연구하도록	연구토록	정결하다	정결타
가하다	가타	흔하다	흔타

2)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안울림소리(ㄱ, ㅂ, ㅅ) 받침 뒤에서 나타나는 경우 ‘-하(어간의 끝음)’가 탈락한다.

본말	준말
거북하지	거북지
생각하건대	생각건대
생각하다 못해	생각다 못해
깨끗하지 않다	깨끗지 않다
넉넉하지 않다	넉넉지 않다
못하지 않다	못지않다
섭섭하지 않다	섭섭지 않다
익숙하지 않다	익숙지 않다

2019. 06. 15.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2. <보기 1>의 사례와 <보기 2>의 언어 특성이 가장 잘못 짝지어진 것은?

<보기 1>

- (가) ‘방송(放送)’은 ‘석방’에서 ‘보도’로 의미가 변하였다.
(나) ‘밥’이라는 의미의 말소리 [밥]을 내 마음대로 [법]으로 바꾸면 다른 사람들은 ‘밥’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없다.
(다) ‘종이가 찢어졌어’라는 말을 배운 아이는 ‘책이 찢어졌어’라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낸다.
(라) ‘오늘’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을 한국어에서는 ‘오늘[오늘]’, 영어에서는 ‘today(투데이)’라고 한다.

<보기 2>

㉠ 규칙성 ㉡ 역사성 ㉢ 창조성 ㉣ 사회성

- ① (가) - ㉡ ② (나) - ㉣
③ (다) - ㉢ ④ (라) - ㉠

12 ④ 문법과 국어생활-현대문법: 언어의 본질

(라)는 나라마다 언어의 형식이 다른 것이므로, 언어의 내용(의미)과 형식 사이에는 절대적이거나 필연적인 관계가 없는 ‘언어의 자의성’의 사례이다. ‘언어의 사회성’은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므로 한 개인이 임의적으로 형식과 내용의 관계를 바꿀 수 없는 특성이다.

[오답 풀이]

- ① (가): 언어의 역사성: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생성·성장·소멸한다.
② (나): 언어의 사회성: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다.
③ (다): 언어의 창조성: 인간은 상황에 따라 무한하게 많은 단어와 문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13. <보기>의 밑줄 친 시어를 현대어로 옮길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우에서다

어데다 무릎을 꾸러야하나?
한발 ㉣재꺼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깜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보다

- 이육사, 「절정」-

- ① ㉠: 채찍 ② ㉡: 마침내
③ ㉢: 그 위 ④ ㉣: 재꺼 디딜

13 문학-현대문학: 현대 시

「절정」(絶頂)은 1940년 1월에 『문장』(文章)에 발표된 이육사의 시이다.

④ ㉣의 ‘재꺼 디딜’은 ‘발끝이나 뒷꿈치만 땅에 닿게 하는’의 뜻으로, 한 발 들어 디딜 곳조차 없는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 ‘채찍에 갈겨’는 일제의 가혹한 탄압을 의미한다.
③ ㉢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는 생존의 극한 상황을 표현한 구절이다.

※출전: 이육사, 「절정」

1. 해제 : 이 작품은 견디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는 관조의 정신으로 받아들이는 강인함을 절제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시적 화자는 치열한 내적 갈등의 결과, 자기 초월의 정신적 경지에 이른다. 한시의 전통적 구성법인 기승전결에 충실하고 언어에 있어서도 고도의 절제와 압축을 보여 주고 있다.

2. 핵심 정리

1)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상징시

2) 성격 : 의지적. 지사적. 남성적, 상징적

3). 구성상의 특징

• 구성상 1, 2, 3, 연을 통해 식민지의 극한적인 상황이 차츰 고조되면서, 4연에서는 그 극대점에서 현실에 대한 시인의 냉철한 인식과 극복의지가 표출된다.

-1연: 고통의 현실(수평적 한계)

-2연: 고통의 심화(수직적 한계)

-3연: 고통의 절정(심리적 한계)

-4연: 고통의 극복(현실 초극 의지)

4) 주제 :

- 가혹한 현실을 초극(超克)[어려움 따위를 극복함]하려는 의지,
- 극한 상황에서의 초월[어떤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음]적 인식

14.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 ① 옷 색깔이 아주 밝구나!
② 이 분야는 전망이 아주 밝단다.
③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떠나겠다.
④ 그는 예의가 밝은 사람이다.

14 ③ 문법과 국어생활-현대문법-품사

③의 ‘밝다’는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는 의미의 동사이다.

[오답 풀이]

‘밝다’는 품사의 통용으로, 동사와 형용사가 있다.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할 때는 현재진행형 어미 ‘-ㄴ다/-는다’의 결합이 가능하면 동사, 불가능하면 형용사이다.

①, ②, ④는 현재진행형 어미의 결합이 불가능한 형용사이다.

2019. 06. 15.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5. <보기>의 ()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을 차례로 나열한 것은?

<보기>

지난여름 작가 회의에서 북한 동포 돕기 시 낭송회를 한 적이 있다. 시인들만 참석하는 줄 알았더니 각계 원로들도 자기가 평소 애송하던 시를 낭송하는 순서가 있다고, 나한테도 한 편 낭송해 달라고 했다. 내가 (㉠) 소리를 듣게 된 것이 당혹스러웠지만, 북한 돕기라는 데 핑계를 돌려대고 빠질 만큼 뻔뻔할 줄은 못했나 보다.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 아니었을까. 그 무렵 나는 김용택의 ‘그 여자네 집’이라는 시에 사로잡혀 있었다. 김용택은 내가 좋아하는 시인 중의 한 사람일 뿐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라고는 말 못 하겠다. 마찬가지로 ‘그 여자네 집’이 그의 많은 시 중 빼어난 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

㉠

㉡

①	원로	낭송하고 싶은 시가 있었다는 게
②	아쉬운	서로가 만족하게 될 실리가
③	시인	잠깐의 수고로 동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④	입에 발린	원로들에 대한 예의가

15 ① 문학-현대문학: 현대소설

빈칸의 앞, 뒤 문맥적 흐름을 먼저 파악한다. ㉠의 앞부분에서 ‘각계 원로들’이 시를 낭송하는 순서가 있다고 ‘나’에게 낭송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므로 ㉠에는 ‘원로’가 적절하다. 그리고 ㉡에는 ‘핑계’나 거역할 수 없는 명분보다 중요한 것으로 시 낭송회에서 ‘낭송하고 싶은 시가 있었다’는 것이 적절하다.

16. <보기>의 밑줄 친 어휘들 가운데 문맥적 의미가 다른 하나는?

<보기>

불문곡직하는 직설은 사람을 찌른다. 깜짝 놀라게 해서 제압하는 방식이다. 거기 비해 완곡함은 땀을 들이면서 애두른다. 듣고 읽는 이가 비껴갈 틈을 준다. 그렇다고 완곡함이 꼭필인 것도 아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도록 하는 게 아니라 화자와 독자의 교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준다. 곱씹어볼 말이 사라지고 상상의 여지를 박탈하는 글이 군림하는 세상은 살풍경하다. 말과 글이 세상을 따라갈진대 세상을 갈아엎지 않고 말과 글이 세상과 함께 아름답기는 난망한 일인가. 아마 아닐 것이다. 막힐수록 옛것을 더듬으라 했다. 물태와 인정이 극으로 나뉘는 세상에서 다산은 선인들이 왜 산을 바라보며 즐기되 그 흥취의 반을 항상 남겨두는지 궁금했다. 그는 미인을 만났던 사람이 적어놓은 글에서 그 까닭을 발견했다. 그가 본 글은 이러했다. ‘얼굴은 아름다웠으나 그 자태는 기록하지 않았다’

- ① 틈 ② 공간 ③ 여지 ④ 세상

16 ④ 비문학-어휘의 문맥적 의미

대화의 완곡함은 ① 틈과 ② 완곡함은 ① 듣고 읽는 이에게 ‘틈’을 주고, ② 화자와 독자의 교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③ ‘상상의 여지’는 준다.

그러나 ④의 ‘세상’은 ‘물태와 인정이 극으로 나뉘는’ 곳으로, 부정적 의미의 공간이다.

※출전: 손철주, ‘꽃 피는 삶에 홀리다’

[참고] 인정물태(人情物態): [같은 말] 인심세태(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 물정).

17. <보기>의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안이 말했다.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서 사환이 지적해 준, 나란히 붙은 방 세 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화투라도 사다가 놀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지만,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냐 하세요.”라고 안은 말하고 나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사환이 가져다 놓은 자리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썼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안이 나를 깨웠다.

- ① 물화된 도시의 삶이 만든 비정함, 절망감, 권태 등이 바탕에 깔려 있다.
② 주인공들은 자기 지위나 이름을 버린 익명적 존재로 기호화되어 있다.
③ 잠은 현실을 초월한 삶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환기하는 매개체다.
④ 화투는 절망과 권태를 견디는 의미 없는 놀이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17 ③ 문학-현대소설

‘아저씨’는 한 방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나’와 ‘안’은 숙박계에 이름, 주소, 나이, 직업 등을 거짓으로 기입하고, 각자 벽으로 막힌 방에 들어가서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이런 설정을 통해 현대인의 익명성, 소통의 단절, 개인주의를 보여 주는 것으로, ③의 설명은 바르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은 1964년 겨울의 서울을 배경으로 현실에서 소외된 고독한 세 인물이 서로 무심하게 만나고 헤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사회적 연대성을 잃은 현대인의 삶을 그리고 있다. 결국 ‘아저씨’는 다음 날 죽은 채로 발견되는데 이를 통해 작가는 인간 소외와 인간관계의 단절을 보여 준

2019. 06. 15.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다.

② 이 소설의 등장 인물은 '나', '안(安)', '사내' 등으로 익명화(匿名化)되어 있다. 현대 도시인의 삶이 그 속성으로 지니고 있는 자기 중심주의, 언어 불소통을 암시하는 문학적 의도이다. 또한 그들의 신원만 단편적으로 제시될 뿐 개개인의 개성이 서술되지 않은 것도 소외 의식을 심화시키는 문체적 특징일 것이다.

④ '화투'뿐만 아니라 세 사람의 대화는 시간을 때우기 위한 수단으로써 말을 하고 있다. 이는 등장인물들의 만남이 본질적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출전: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1. 해제: 이 작품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인간의 고독과 소외, 의사소통의 단절을 다루고 있다. 1960년대 우리 사회의 전형성을 지닌 세 인물을 제시하여 피상적인 인간관계만을 강요하는 도시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2. 핵심정리

- 1) 갈래: 단편 소설
- 2) 성격: 현실 고발적, 사실적
- 3)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 4) 배경: ▶ 시간 - 1964년 어느 겨울밤
▶ 공간 - 서울 거리

5) 주제: 뚜렷한 가치관을 갖지 못한 도시인들의 방황과 연대감의 상실로 인한 절망

3. 제목의 의미

이 작품은 1964년 겨울의 서울을 배경으로 현실에서 소외된 고독한 세 인물이 서로 무심하게 만나고 헤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사회적 연대성을 잃은 현대인의 삶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대학생 '안'과 서적 외판원 사내는 결국 1960년대 우리 사회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전형적 인물 유형인 것이다.

18.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가까운 내용을 담은 시조는?

성현의 경전을 읽고 자기를 돌이켜 보아서 환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거든, 모름지기 성현이 준 가르침이란 반드시 사람이 알 수 있고 행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한 것임을 생각하라. 성현의 말과 나의 소견이 다르다면 이것은 내가 힘쓴 노력이 철저하지 못한 까닭이다. 성현이 어찌 알기 어렵고 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를 속이겠는가? 성현의 말을 더욱 믿어서 딴 생각이 없이 간절히 찾으면 장차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 이황, 「독서」-

- ① 십년을 그온 칼이 갑리(匣裏)에 우노미라
관산(關山)을 바라보며 때때로 문져 보니
장부(丈夫)의 위국공훈(爲國功勳)을 어니 때에 드리울고.
- ② 구곡(九曲)은 어드미고 문산(文山)에 세모(歲暮)커다.
기암괴석(奇巖怪石)이 눈속에 못첫세라
유인(遊人)은 오지 안이하고 불췌업다 흐드라
- ③ 강호(江湖)에 겨울이 드니 눈 기피 자히 남다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오슬삼아
이 몸이 침지 아니하웁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④ 고인(古人)도 날 몰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고인을 못 봐도 녀든 길 알피 잇닌
녀든 길 알피 잇거든 아니 녀고 엇절고

18 문학-고전문학-고시조의 이해

밑줄 친 구절은 성현의 경전에서 반드시 얻는 바가 있다는 것이다.

④는 이황의 <도산십이곡> 중 9수로, 옛 성현의 도리를 본받고자 하는 화자의 다짐이 드러나 있다.

① 이순신의 시조

1) 주제: 우국 충정(憂國衷情)과 장부의 호기

2) 현대어 해석

십 년이나 갈아온 칼이 갑(칼집) 속에서 우는구나.

관문(關門)을 바라보며 그 갑 속에 든 칼을 때때로 만져 보니,

대장부의 나라를 위한 큰 공을 어느 때에 세워 (임금께 그 영광을) 드리울꼬?

② 이이의 <고산구국가> 중 10수

1) 해제: 해 지는 문산을 노래함으로써 일반인들이 눈에 덮인 산 경치를 알지 못함을 한탄하는 체하면서 사실은 화려하고 웅장한 것만 아름다운 것으로 알고 있는 세속인들의 경박함을 나무라고 있다.

2) 현대어 해석

아홉 번째 굽이는 어디이고, 문산에 한 해가 저무는구나.

기이하게 생긴 바위와 돌이 눈 속에 묻혀 버릴까 걱정되는구나.

이리저리 놀러 다니는 사람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더라.

③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중 4수

1) 해제: 겨울이 찾아든 강촌에 소복하게 쌓인 눈의 깊이가 한자나 넘는 듯하고, 도롱이 옷을 꺼 입으니 춥지 않게 겨울을 보낼 수 있어 이 또한 고마운 일이다. 이 모두가 우리 임금님이 주시는 은혜 덕택이 아닐까 생각한다.

2) 주제: 겨울 강촌에서의 安貧樂道(안빈낙도)

3) 현대어 해석

강호에 겨울이 닥치니 쌓인 눈의 깊이가 한 자가 넘는다.

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도롱이를 돌려 입어 덧옷을 삼으니,

이 몸이 이렇듯 추위를 모르고 지내는 것도 임금의 은혜이시도다.

④ 이황의 <도산십이곡> 중 9수

현대어 해석

옛 성현도 나를 보지 못하고, 나 역시 옛 성현을 뵈지 못했네.

옛 성현을 보지 못했지만 그 분들이 행했던 가르침이 앞에 있구나.

그 행하신 길이 앞에 있는데 아니 행하고 어찌할 것인가?

19.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 '쇠항아리'와 의미가 통하는 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2019. 06. 15.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①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닭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항아리.

-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中-

① 조국아/한번도 우리는 우리의 심장/남의 발톱에 주어진 적/없었나니 (「조국」 中)

② 아사달과 아사녀가/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부끄럼 빛내며/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中)

③ 꽃피는 반도는/남에서 북쪽 끝까지/완충지대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中)

④ 마을 사람들은 되나 안 되나 쑥덕거렸다./봄은 발병 났다커니/봄은 위독하다커니 (「봄의 소식」 中)

19 문학-현대문학-현대 시

밑줄 친 ㉠의 ‘지붕 덮은 쇠항아리’는 2연의 ‘먹구름’과 함께 민중들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암담한 현실 상황, 억눌러 살아야 했던 역사적 상황을 상징한다. 4연에서 시적 화자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민족사적 과제를 ‘먹구름을 닭고 쇠 항아리를 찢는 것’으로 제시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삶의 외경과 연민을 아는 참다운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①의 ‘발톱’도 우리의 조국, 위의 심장을 억압하는 외세를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②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중립의 ‘초례청(醯禮廳)’은 이데올로기의 제약을 초월한 민족 화해의 장(場)을 암시한다.

③ 신동엽,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완충지대’는 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이며, 남북한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평화로운 공간이다.

④ 신동엽, ‘봄의 소식’

‘봄’은 통일, 군사 독재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자유, 민족과 민중의 모순이 해결된 상태, 정의, 민주주의, 민중과 민족의 희망 등을 의미한다.

• 주제 : 봄의 도래에 대한 희망

※출전: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1. 해제: 이 시는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걸어온 구속과 억압의 상황을 직시하게 함으로써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자유를 쟁취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맑은 하늘’을 보지 못하고 대신 ‘먹구름’을 하늘로 잘못 알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왜곡된 현실 인식에 대한 자각과 반성이 이 시의 바탕에 깔려 있다. 특히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새로운 진실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2. 핵심 정리

1) 성격 : 현실 참여적, 비판적, 저항적, 남성적, 걱정적

2) 주제

• 인간본연의 참된 삶의 현장 갈구

• 구속과 억압의 역사에 대한 비판과 밝은 미래를 영원함

3) 구성(짜임)

• 1~3연: 현실을 잘못 인식해 온 과거의 삶(과거)

• 4~6연: 현실 극복의 결의 촉구(현재)

• 7~8연: 인고의 삶 - 현실극복의 의지(현재)

• 8연: 엄숙하고 경건한 삶의 자세

• 9연: 현실 인식과 바람직한 삶에 대한 의지, 밝은 미래의 영원(미래)

4) 표현상 특징

• 행간 걸림의 기법을 통해 화자의 미세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의미의 다양한 울림을 얻음.

• 대립적 이미지로 주제를 부각시킴.(맑은 하늘 ↔ 먹구름, 쇠항아리)

• 단정적이고 강렬한 명령형의 어조로 저항적 의미를 드러냄.

• 시간의 흐름(과거→현재→미래)에 따른 시상 전개

• 경건한 정서와 의지적 태도

•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함.

20.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현행 표준 발음법에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단, ‘:’은 장모음 표시임.)

① 비가 많이 내려서 물난리가 났다. -물난리[물랄리]

② 그는 줄곧 신문만 읽고 있었다. -신문[심문]

③ 겨울에는 보리를 밟는다. -밟는다[밤:는다]

④ 날씨가 벌써 한여름과 같다. -한여름[한너름]

20 문법과 국어생활-국어생활: 표준발음법

② ‘신문’의 표준발음은 [신문]이다 [심문]으로 발음하는 양순음화는 인정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물난리[물랄리(유음화: 교체)]

③ 밟는다[밤:는다(자음군단순화:탈락)→밤:는다(비음화:교체)]

④ 한여름[한너름(ㄴ첨가)]